

취학 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동의 기질,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의 영향

김수경·장영애*
인천대학교 대학원·소비자아동학과*

The Effect of Children's Temperament,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Kim, Su Kyoung · Jang, Young Ae*

Graduate School, Univ. of Incheon, Incheon, Korea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Univ. Of Incheon, Incheon,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parenting behavior, and parenting stress on preschool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The subjects were 190 children consisting of five and six years old and their mothers and fathers. They were selected from 6 kindergartens. Data was collected using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dex, the children's temperament index, the parenting behavior questionnaire, and the parenting stress questionnaire.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om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the children's gender,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hildren's age.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children's temperament had significant correlation, especially the children's adaptability and activity indicated high positive correlations. In addition,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mother's warmth · acceptance behavior had significant high positive correlation, and father's rejection · restriction behavior had significant high negative correlation. Also,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and the mother's and father's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and educational distress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It was also found that children's gender, mother's permissiveness · non- intervention behavior, mother's educational distress, mother's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and father's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were all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preschool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Key words: children's temperament,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접수일: 2010년 10월 29일 심사일: 2010년 11월 2일 게재확정일: 2010년 11월 26일

Corresponding Author: Jang, Young Ae Tel : 82-32-835-8254 Fax : 82-32-835-0764

e-mail: chaec@incheon.ac.kr

I. 서론

친사회적 행동이란 공격적 행동에 대조가 되는 행동 즉, 이타심, 동정심, 자선, 나눠주기 등의 행동을 기술하기 위해 Wispe(1972)가 처음 제기한 개념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개인의 사회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행동으로, 사회 구성원이 옳다고 여기는 행동, 타인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자발적인 행동을 말한다. 즉, 어려움에 처한 타인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수행되는 행동을 의미한다(김규수 등 2003).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여 이타행동, 도움행동, 친사회적 행동 등의 용어가 동일하게 또는 상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정현희 1990). 또한 친사회적 행동의 범주에는 돕기, 나누기, 협력하기, 위로하기, 양보하기 등의 좁은 범주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관심보이기, 배려하기, 적응하기 등의 좀 더 넓은 범주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한 범주가 있다(최윤정·이기숙 1999). 이원영 등(1993)은 McGinnis와 Goldstein(1990)의 범주를 수정하여 학교적응 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등의 범주가 친사회적 행동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학교적응능력은 집단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예절을 지키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며 사회적 규약 안에서 타인과 잘 지내고 집단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의미하며,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적 관계를 원만히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경험하고 의견을 조정해 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 분화에 대하여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변화시키며 유지,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인간의 행동영역 중 부정적인 측면이나,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인본주의 심리학의 성장, 인권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은 인간발달 연구의 초점을 반

사회적 행동의 문제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문제로 옮겨 놓았다.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친사회적 행동은 계층 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핵가족화로 인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그 기능이 점차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인간의 능력과 관련된 행동은 사회 생활에 필수적이며,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변인들은 통합된 인간행동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는 능력(O'Malley 1977)이므로,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은 인간의 전 생애 중 성인기보다는 아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아동기에 획득한 사회, 정서, 인지능력이 성인기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아동기에 한번 획득한 능력은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긍정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현재의 적응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과도 관련이 있다(Maccoby & Martin 1983; Pettit et al. 1988).

친사회적 행동과 관계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개인적 특성변인과 부모와의 관계에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아동의 개인적 특성 중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변인이 기질이다. 기질이란 행위수행의 일관된 패턴을 의미하는 것(Thomas & Chess 1977)으로 아동의 발달은 기질적 특성이나 환경 중 하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질 특성과 환경 맥락 적 요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기질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기질 유형과 어머니 혹은 형제 관계 등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다루었으나 아동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개인차가 이후 행동의 발달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기질은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과 적응 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천희영(1993)은 기질유형에 따라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유아의 성격과 행동에 개인차가 생긴다고 보는 등 기질을 유아의 사회, 정서 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실제로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볼 때 나은영(2006), 원영미(1990)등은 순한 기질

의 아동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고 순한 기질의 아동이 유치원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남영옥(2006)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부분적인 상관성이 나타났는데 유치원 적응능력은 금지통제성과 정적상관을, 부끄러운 성향과 불안감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불안감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금지통제성과 정적상관을, 불안감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의 기질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아동에 관계되는 변인으로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연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남영옥 2006; 송수미 2004; Underwood & Moore 1982)가 있는 반면, 연령과 친사회적 행동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고한 연구(나은영 2006; 남영옥 2006)도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성별의 경우도 여아가 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박경자 1999; 송수미 2004)가 있는 반면 성별은 친사회적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남영옥 2006)도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연령과 성별은 친사회적 행동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이고 가정 내 부모와 관련된 변인이 아동의 발달을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능력의 경우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되고, 아동기에 형성된 부모-자녀관계가 최초의 대인관계인 동시에 가장 밀접한 사회관계이기 때문이다. 즉,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배우게 됨으로 부모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되는 것이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자녀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부모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어떠한 양육행동

을 보이냐에 따라 아동의 사회성발달, 친사회적 행동 등이 달라진다고 하였다(권연희·박경자 1997; 김순애 2000; 김현미 2004; 박범혁 1999; 성숙란 2007). 즉, 어머니가 제한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아동의 친사회적 능력이 낮고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권연희·박경자 1997; 박범혁 1999; 장영숙 등 2003). 김내식(2005)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애정적이고 성취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Baumrind(1971)의 연구에서는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제한을 따르도록 하지만 신체적 처벌보다는 추론으로 위반에 대응하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원영 등(1993)은 양육과정에서 보이는 부모의 행동이 아동에게 친사회적 행동의 모델을 제공하게 되므로,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동은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와주며 관대함을 보이는 행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들(김순애 2000; 김현미 2004; 김희정 2003; 성숙란 2007; Maccoby 1980)이 부모의 양육행동이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가 어떠한 양육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부모에게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 하는데 이러한 역할과 책임은 부모들에게 양육스트레스로 다가가기도 한다. 양육스트레스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기르고 가르치는 부모 역할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스트레스다. 양육스트레스는 다른 주요한 사건에 비해 사소한 스트레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매일 반복하여 발생하고 해소되지 않은 채 누적되므로 부모자신의 복지와 양육 행동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전춘애·박성연 1998). 특히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여성에게 자녀양육이나 가사노동의 책임을 지워 어머니, 아내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고 이를 중요시 여겼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취업이 증가하고 여성에

게 어머니, 아내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이 모두를 잘 수행하기를 바라는 사회적 기대와 부담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 시키게 되었다(김혜진 2003; 문혜련 1999; Abidin 1992).

이러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Crnic과 Greenberg(1990)은 부모의 많은 스트레스는 적절한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며 부모와 가족과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문혜련(199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아동이 사회적 능력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살펴본 이지희(2005)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아동의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이 높게 나타나고 사회적 능력 총점도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때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고선하(200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였으며 지도성, 도움주기, 의사소통, 접근-시도하기, 나누기, 감정이입조절에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계되는 변인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여성취업률의 증가로 인해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책임을 지고 전담하던 것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아버지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과거 자녀양육에는 큰 역할을 수행하지 않던 아버지에게 그 역할 부담이 나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받는 양육스트레스도 증가 되었다. 또한, 아버지의 역할 변화에 따라 아버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보다 크게 나타난 연구도 있다. 그 중 사회적 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비롯한 사회

적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어머니와 다른 측면에서 사회, 정서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으며(김정신 2000; 최한순 1995), 일부 연구(김내식 2005)에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는 양육스트레스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김현미 2004; 김혜경 2006; 김혜진 2003; 문혜련 1999; 박범혁 1999; 차삼숙 2005). 따라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를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발달 증진에 도움을 주는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아동의 성별,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기질,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들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가정 및 아동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 아동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아동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하며,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얻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동의 기질과 친사회적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넷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에 위치한 6개의 유치원을 임의 표집 하여 만 5, 6세 아동 190명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각각 19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 아동은 만 5세가 91명(47.9%), 만 6세가 99명(52.1%)이며, 남아가 97명(51.1%), 여아가 93명(48.9%)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척도, 아동의 기질척도,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와 양육스트레스 척도이다.

1)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척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McGinnis와 Goldstein(1990)이 아동의 친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Skill Situations Measure를 이원영 등(1993)이 수정·번안하여 제작한 친사회적 행동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아동의 유치원 적응능력, 대인관계 형성능력, 개인정서 조절능력 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각각 5개 문항씩 총 15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질문지의 각 문항은 아동의 문항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에서 유치원 적응능력은 집단생활을 통해 타인과의 예절을 지키고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며 사회적 규약 안에서 타인과 잘 살고 집단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의미한다.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적 관계를 원만히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을 경험하고 의견을 조정해 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회 분화에 대하여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고 변

화시키며 유지,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행동 척도는 그림을 통해 표현된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동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게 한 후 아동의 반응을 면접원이 기록하고 검사가 끝난 후 내용을 분석하여 친사회적 반응에는 1점을 주고 공격적 반응과 무관련 반응, 그리고 무반응에는 0점을 준다. 친사회적 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6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기질척도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천희영(1992)이 개발한 아동 기질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기질 척도는 뉴욕종단 연구의 9개 기질차원을 요인 분석하여 우리나라 만 3세-7세 아동들에게 적합한 기질 구성차원으로 밝혀진 5개 구성차원 즉, 적응성 10문항, 활동성 9문항, 생리규칙성 4문항, 반응성 6문항, 정서성 4문항 등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적응성은 새로운 자극 또는 변화에 대한 적응도를, 활동성은 신체적 움직임의 활발함을, 생리규칙성은 수면, 식사에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인 것을 의미하고, 반응성은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정서성은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기질 척도의 응답자는 아동의 어머니이며 문항별 반응 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 4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의 기질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3)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박영애(1995)의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 변인은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정·수용은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및 경험의 공유, 대화와 설명 등의 부모행동을 의미하며, 거부·제재는 아동에 대한 불만,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표현, 적대적, 감정적 훈육, 무시와 비

하, 억압, 잔소리, 불신 그리고 침해적 개입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허용·방임은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는 익애·굴욕형 허용과 무책임·무관심형 방임 등의 양육행동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각 하위변인에 따라 12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4개의 응답 범주, 즉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어머니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3이고,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1로 나타났다.

4)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척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신숙재(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PSI)를 서혜영(1992)이 번안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척도의 하위변인은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구성되었다.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다루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자녀와의 사이가 가깝지 않다고 지각하는 등 자녀와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이다.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보다 공부를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않아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양육스트레스 측정도구는 하위요인별로 자녀의 기질과 관련된 스트레스 8문항, 자녀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9문항,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3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아버지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3이고,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과 문항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이해정도,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유치원의 만 4, 5, 6세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부모도 3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만 4세 아동은 검사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척도의 경우 예비조사 결과를 기초로 몇몇의 문항의 용어를 수정 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6개 유치원 만 5, 6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아동용 검사는 각 유치원을 방문하여 각 반 담임선생님과 원장, 원감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방에서 한 명씩 실시하였으며, 부모용 질문지는 원장선생님의 도움으로 부모에게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총 350부를 배부하였는데, 그 중 미회수 된 것, 응답이 불성실하고 부모-아동의 쌍이 맞지 않는 질문지를 제외 하고, 총 190부의 질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4.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ver.13.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성별과 연령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산출을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를 아동의 성별,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아동의 기질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는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본 아동의 연령대가 만5, 6세로 그 폭이 좁아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 중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2. 아동의 기질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아동의 기질과 친사회적 행동이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 중 유치원 적응능력은 적응성, 활동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활동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친사회적 행동 총점은 적응성, 활동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 아동의 기질중 적응성, 활동성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3.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치원 적응능력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아버지의 거부·제재 양육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과는 정적상관을, 허용·방임 행

Table 1. Difference in prosocial behavior according to the children's age and gender

Variables		School adaptability			Forming relationship			Control skill of personal emotion			Total prosocial behavior		
		M	SD	t	M	SD	t	M	SD	t	M	SD	t
Age	5	3.15	1.50	-.968	3.97	.97	-1.405	3.46	1.24	.048	10.60	2.13	-1.904
	6	3.30	1.04		4.16	.88		3.46	1.10		10.92	2.09	
Gender	male	3.12	1.05	-1.581	3.89	.96	-2.944**	3.58	1.23	1.467	10.60	2.23	-1.262
	female	3.35	1.03		4.27	.84		3.34	1.08		10.97	1.97	

** p<.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children's temperament and prosocial behavior

	School adaptability	Forming relationship	Control skill of personal emotion	Total prosocial behavior
Adaptability	.192*	.000	.085	.150*
Activity	.175*	.051	.223**	.252**
Physiological regularity	.018	-.019	-.047	-.029
Reactivity	.021	.095	.028	.067
Emotionality	.056	.079	-.067	.014

*p<.05, **p<.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School adaptability	Forming relationship	Control skill of personal emotion	Total prosocial behavior
Mother				
Warmth · acceptance	.202**	.188*	.193**	.301**
Rejection · restriction	-.030	-.078	.056	-.010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057	-.223**	.097	-.054
Father				
Warmth · acceptance	.092	.213**	-.061	.091
Rejection · restriction	-.178*	-.144*	-.094	-.207**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035	-.015	.068	.022

*p<.05, **p<.01

동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아버지의 온정·수용 행동과는 정적상관, 거부·제재 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과만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친사회적 행동 총점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 행동과 정적상관을, 아버지의 거부·제재 양육 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 어머니가 온정 수용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낼수록, 그리고 아버지가 거부 제재적인 행동을 적게 나타낼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4.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친

사회적 행동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원 적응능력은 어머니의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아버지의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총점과도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대인관계 형성능력은 어머니의 자녀기질 관련 스트레스,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기질 관련, 자녀관계 관련,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모두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개인정서 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자녀관계 관련, 학습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School adaptability	Forming relationship	Control skill of personal emotion	Total prosocial behavior
Mother				
Stress of difficult child	-.059	-.163*	-.045	-.124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185*	-.176*	-.278**	-.344**
Educational distress	-.157*	-.279**	-.153*	-.290**
Total parenting stress	-.166*	-.238**	-.210**	-.315**
Father				
Stress of difficult child	-.104	-.152*	.072	-.064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249**	-.241**	-.202**	-.352**
Educational distress	-.135	-.167*	-.081	-.187**
Total parenting stress	-.210**	-.235**	-.086	-.254**

*p<.05, **p<.01

기대 관련 스트레스, 아버지의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친사회적 행동 총점은 어머니의 자녀관계 관련,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아버지의 자녀관계 관련,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관계 관련,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 총점이 낮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5.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의 연령, 성별, 아동의 기질,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각각의 하위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5 와 같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투입된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r=.70$ 을 넘는 변인이 없고, 분산팽창인수(VIF)도 1.256-2.167로 산출되어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Table 5. The effect of the related variables to the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School adaptability			Forming relationship		
	B	β	t	B	β	t
age of child	.154	.168	.682	.082	.050	.693
gender of child	.245	.178	1.344	.325	.139	1.811
adaptability	.026	.023	1.244	-.026	-.116	-1.359
activity	.002	.024	1.013	.001	.079	.888
Temperament						
physiological regularity	.023	.046	.440	-.009	-.053	-.668
reactivity	-.034	.038	-1.030	.004	.021	.258
emotionality	-.030	.062	.239	.034	.081	1.028
mother						
warmth · acceptance	.003	.025	1.199	-.010	.031	.270
rejection · restriction	-.006	.022	.636	.007	.030	.356
Parenting						
behavior						
father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012	.025	.713	-.037	-.189	2.432*
warmth · acceptance	.020	.022	-.532	.055	.091	.968
rejection · restriction	.022	.020	-.355	.015	.046	.467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004	.020	-.063	.013	.078	1.013
stress						
mother						
stress of difficult child	.016	.024	.148	.011	.017	.183
stress of parent-child	.024	.025	.532	.000	.004	.031
dysfunctional interaction						
educational distress	-.064	.052	.391	-.101	-.198	-2.012*
father						
stress of difficult child	.024	.022	-.158	-.018	-.038	-.404
stress of parent-child	.007	.026	-1.226	.019	-.128	-1.072
dysfunctional interaction						
educational distress	.029	.057	.035	.020	.028	.309
R ²		.114			.179	
F		1.148			1.942*	

Table 5. Continued

		Control skill of personal emotion			Total prosocial behavior			
		B	β	t	B	β	t	
	age of child	-.015	-.057	-.800	.191	.008	.115	
	gender of child	-.403	-.240	-3.206**	.165	-.049	-.660	
Temperament	adaptability	-.027	-.094	-1.133	-.031	-.054	-.654	
	activity	.005	.056	.637	.007	.114	1.311	
	physiological regularity	-.065	-.079	-1.030	-.049	-.056	-.722	
	reactivity	.012	.036	.445	-.019	-.011	-.139	
	emotionality	.010	.039	.501	.016	.068	.876	
	mother							
Parenting behavior	warmth · acceptance	-.005	.006	-.202	-.008	.085	-.174	
	rejection · restriction	.022	.086	.971	.023	.096	.549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023	.083	.908	-.026	-.049	-.561	
	father							
	warmth · acceptance	.003	-.145	.140	.080	-.084	1.787	
	rejection · restriction	.007	-.020	.342	.044	-.012	1.174	
	permissiveness · non-intervention	.024	.047	1.182	.044	.064	1.203	
Parenting stress	mother							
		stress of difficult child	-.010	-.039	-.422	.019	-.012	-.124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058	-.241	-2.134*	-.041	-.125	-1.111
		educational distress	-.080	-.071	-.744	-.245	-.146	-1.520
	father							
		stress of difficult child	-.004	.120	1.290	-.051	.055	.598
		stress of parent-child dysfunctional interaction	-.003	-.219	-1.879	.026	-.269	-2.313*
		educational distress	.060	.031	.342	.108	.033	.370
R ²		.217			.220			
F		2.471**			2.514**			

*p<.05, **p<.01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분석은 관련변인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택한 독립변인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법(Enter)을 사용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변인별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먼저 유치원 적응능력에는 관련변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대인관계 형성능력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허용·방임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가 낮고, 어머니가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나타낼수록 아동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중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대한 이들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은 18% 정도로 나타났다.

아동의 개인정서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와 성별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여아가 개인정서 조절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2% 정도로 나타났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총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였다. 즉,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낮아짐을 알 수 있고, 이들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 총점을 설명하는 비율은 2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는 하위변인별로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취학 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동의 기질, 부모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이다. 즉, 아동의 성별,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 아동의 기질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동, 부모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아동 발달을 위한 부모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의 6개 유치원, 만 5, 6세 아동 190명과 그들의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아동의 기질, 친사회적 행동, 부모의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 연령에 따라 아동의 친사

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먼저 연령에 따라서는 친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차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김희정 2003; 송수미 2004; 이옥경·이순형 1996; 홍혜란 2008)들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만 5, 6세로, 연령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변인 중 대인관계 능력에서만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 중 대인관계 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나은영(2006), 박서정(2001), 송수미(2004), 홍혜란(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아동의 기질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사회적 행동은 적응성, 활동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 아동의 기질중 적응성, 활동성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변인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그 구체적인 결과를 비교 할 수는 없지만 기질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 관계가 있다는 나은영(2006), 남영옥(2006), 원영미(1990)등의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아동이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적응을 잘하고 활동적 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함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사회적 행동 중 유치원 적응능력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을, 아버지의 거부·제재 양육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대인관계 능력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과는 정적상관을, 허용·방임 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으며, 아버지의 온정·수용 행동과는 정적상관, 거부·제재 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정서조절능력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행동과만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친사회적 행동 총점은 어머니의 온정·수용 양육행동과 정적상관을, 아버지의 거부·제재 양육행동과는 부적상관을 나타내 어머니가 따뜻하게 아동을 받아주고 수용할 때, 그리고 아버지가 아동을 거부

하거나 아동의 행동에 제재를 덜 가할수록 아동이 원만하고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을 습득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가 온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면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고 보고한 권연희·박경자(1997), 박범혁(1999), 장영숙 등 (2003)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고,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양진숙(1991), 조혜영(2001)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사회적 행동은 어머니의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와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아버지의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와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총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관계 관련,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총점이 낮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한 고선하(2008)의 연구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아동의 주도성, 유능성, 사교성이 높게 나타난 이지희(2005)의 연구,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부적응이 높아지고, 공격성, 불안 및 파괴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결과와 양육과 관련된 일상적 스트레스 사건이 아동의 적응과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Abidin 1990; Belsky 1984)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다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먼저 친사회적 행동 중 유치원 적응능력에는 아동의 연령, 성별, 기질, 부모의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치원 적응능력의 경우 아동이나 부모에 관련되는 변인보다는 유치원에서의 또래나 교사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 분석 연구가 요망된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와 허용·방임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학습기대 관련 스트레스가 낮고, 어머니가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나타낼수록 아동의 대인관계 형성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중 대인관계 형성능력에 대한 이들 관련 변인들의 설명력은 18% 정도로 나타났다. 아동의 개인정서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와 성별로 나타나 어머니의 자녀관계 관련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그리고 여아가 개인정서 조절 능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2% 정도로 나타났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총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중 자녀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였다. 즉,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 총점을 설명하는 비율은 2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는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허용·방임 양육행동, 어머니의 학습기대와 관련된 스트레스, 자녀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여아가, 그리고 어머니가 지나치게 아동의 요구를 들어주고 방임적으로 양육하지 않을 때, 또한 자녀의 학습 성취에 지나친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을수록,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두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연구의 결과 아동의 기질 변인은 하위변인 모두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는 아동의 타고난 기질보다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에 관계되는 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는 경기, 서울, 인천지역의 일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결과를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측정도구가 표준화 되어 있지 못하고 일부 척도의 신뢰도가 낮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 변인 중, 한두 가지 변인만을 분석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 아버지의 양육변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만 5, 6세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전체 취학 전 아동에 일반화 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두 연령 집단으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의 폭을 넓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과 부모 관련 변인만을 연구하였으나, 5, 6세 아동의 경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 또래집단과 함께 보내므로, 후속연구에서는 교사,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 취학 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내적변인인 기질보다는 부모 환경 변인인 양육행동과 양육스트레스로 나타났으므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사용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선하(2008) 어머니의 분노 표현방식과 양육스트레스 및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연희·박경자(1997) 친사회적 행동의 사회화에 있어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역할.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1, 91-101.
- 김규수·박승순·권소영(2003) 유아의 정서지능과 자아개념 및 친사회적행동과의 관계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8(1), 253-270.
- 김내식(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상관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순애(2000) 어머니의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신(2000)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미(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경(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자기 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사회계층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혜진(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정(2003)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은영(2006) 유아의 기질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남영옥(2006) 가정환경변인 및 기질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교육 15(1), 279-292.
- 문혜련(1999)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경자(1999)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대한가정학회지 131, 79-89.
- 박범혁(1999)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취학 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서정(2001)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혜영(1992) 장애아 어머니의 적응과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숙란(2007) 유아의 성별,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수미(2004) 유아의 기질 유형과 이타 행동수준과

- 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의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양진숙(1991) 초등학교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태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옥경·이순형(1996) 과제부담과 종류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17(1), 275-288.
- 이원영·박찬옥·노영희(1993)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13(1), 65-91.
- 이지희(2005)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영숙·강경석·김희정(2003) 유아의 연령 및 성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한국아동학회지 24(4), 41-53.
- 전춘애·박성연(1998)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95-105.
-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혜영(2001) 아버지의 양육태도, 교육수준, 직업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삼숙(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윤정·이기숙(1999) 그림동화책 읽어주기와 토의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추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275-291.
- 천희영(1992) 한국아동의 기질유형화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희영(1993)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아동연구 2, 19-31.
- 최한순(1995)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란(2008) 유아의 기질, 정서능력, 친사회적 행동 발달 및 어머니의 친사회성과 관련된 양육신념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R(1990) Parenting stress index. Charlottesville, VA : Pediatric psychology Press.
- Abidin RR(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21, 407-412.
- Baumrind B(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1, 1-103.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Crinic KA, Greenberg MT(1990) Minor parenting stres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037.
- Maccoby EE(1980) Social development : psychologic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ew-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Maccoby EE, Martin J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EM Hetheringto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1-101). New York : Wiley.
- McGinnis E, Goldstein AP(1990) Skillstreaming in Early Childhood. Research Press.
- O'Malley JM(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il-Palmer Quartely 23(1), 29-44.
- Pettit GS, Godge KA, Brown MM(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Thomas A, Chess S(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 Bruner/ Mazel.
- Underwood B, Moore B(1982) Perspective 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1), 143-173.
- Wispe LG(1972) Positive forms of social behavior : an overview. Journal of social Issues 28, 1-19.